

# 주일 예배 순서

- 부활절 제2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62:1-2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44장(새 19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새 11번(스크린 참조)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사ق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박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사랑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요한1서 3:13-18 ..... 인도자
- 찬양(Anthem) ..... 시온성가대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한 조건

- 봉 헌(offering) ..... 347장(새 212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369장(새 218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미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North Carolina 주에 있는 Charlotte에서 개최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장석순할머니, 허춘희권사님)

###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 [믿음, 소망속] 고린도후서 9:27

누가 보기에도 선하고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권리조차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은 '이 정도는 당연히 관찮겠지!'하는 '내 생각'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권리를 사용했을 때 결과와 영향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시키고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자아(내 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 〈말씀묵상〉 요한1서 3:13-18

13 형제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13-16절) 내 안에 예수님께서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사랑이 있습니까?
2. 사도요한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17-18절) 나는 지금 이 사랑을 추구하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믿음과 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약 2:14-17)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 5:6)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스스로 속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아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찌 보면 사랑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단순히 흉내 내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다반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부담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최선을 다하면 주님도 알아주시겠지'하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 15:12)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16절)고 풀어 설명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흉내 내는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진실하지 못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아닌 내가 세워 놓은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틀에서 벗어나길 원치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태만한 계몽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감히 '나는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각오와 준비를 하며 하는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벧전 1:22)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자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사랑을 통한 어떠한 변화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사랑을 시작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